

## 중년여성의 신체부위 인지유형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착의 의복 스타일

위은하 · 박우미\*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광주대학교 디자인학부 의상디자인 전공

### Body Cathexis and Actual Clothing Styles of Middle-aged Women According to Perception of Their Body

Eun-Hah Wee · Woo-mi Park\*

Dept. of Education of Home Economics chonnam Nat. University

\*Devison of Design Gwang-ju University

(2003. 5. 9. 접수)

####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for improving wearing styles for middle-aged women who are in unsatisfactory body types and also providing th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suitable clothing designs for them. This study focuses on what kinds of body types they perceive, what the differences are between the perception of their body types and the real ones, and how the actual clothing styles can be affected by those perceived body typ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survey of the perception of body types, the clothing styles,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body cathexis, while measuring body size of each person responded.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 ANOVA, Duncan-test of SPSS Win. (ver 10.1)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perception of their body type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clusters, the obesity, the arm & leg obesity, the slender.
2. By and large, Middle-aged women perceive their body types exactly what they are. However, they show a relatively subjective view on the upper arm girth, ankle girth, and arm length
3. The abdomen is at the lowest satisfactory part in body cathexis for the entire groups responded, and there are some differences among the perception of their body types in whole body silhouette and trunk.
4. Middle-aged women who perceive themselves as a bit slender show a tendency of having tight and revealing clothing styles, while the obese who perceived themselves wouldn't take them as appropriate dresses.

**Key words:** middle-aged women, perception of body types, body cathexis, Actual clothing styles; 중년여성, 신체부위인지, 신체만족도, 실제착의의복형태

#### I. 서 론

영상매체의 발달로 시각문화의 가치가 끊임없이 커지고 있는 지금,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아름다움의 이상을 자신의 외모에서 발견하고 싶어하며 특히,

의복을 입고 거울을 볼 때 의복-인체 구조(Apparel-Body Construct)가 만들 수 있는 잠재적 매력을 끊임없이 탐색하면서 자신의 외모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의복-인체 구조의 기본을 이루는 체형에

있어 현대 사회에서 이상으로 여기는 체형은 키가 크고 말라 보이는 것이지만 대다수의 여성이 이러한 이상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가사노동의 과정 및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점 더 이상적인 체형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하여 중년기에 이른 여성은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 젊었을 때와는 다른 체형 실루엣으로 변화하게 되며 특히 골반부위는 형태적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신체부위로 알려져 있다. 즉, 허리와 엉덩이치수의 차이, 배둘레 치수와 앞 엉덩이둘레/뒤 엉덩이둘레의 치수치가 다른 치수에 비해 젊은 사람들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平澤和子, 長井久美子, 1993). 그리고 절대적인 신체치수뿐 아니라 신체비례도 변화하여 길고 날씬해 보이던 체형은 작고 뚱뚱해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20대 여성은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형으로 여겨 3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가늘고 긴 체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는 반면(植竹桃子, 1988; 김용숙, 1990; 박우미, 1993; 구양숙, 추태귀, 1996) 중년여성의 경우 비교대상을 같은 연령대로 여기기 때문에 신체비율이 더 굵고 짧음에도 신체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심정희, 2003). 중년여성의 경우 이렇게 젊었을 때와는 달라진 실제체형과 신체부위에 대한 인지가 선호하는 의복형태도 다르게 유도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하면서 변화되는 신체부위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기성복의 치수 커버율이 낮아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착의 의복형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였다.

자신의 실제체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나름대로 전체뿐 아니라 신체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갖고(정옥임, 1993) 불만족한 부위에 대해 끊임없는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물론 비만과 관련된 신체이미지가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지만 신체비율이나 형태에 의한 만족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신체비율이나 형태에 대한 내용을 간과하고 주로 크기와 관련된 신체만족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신체만족도는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중 인지체형과 관련이 더 깊으며(Douty, Brannon, 1984; Lennon, 1988; 남윤자, 이승희 2001) 착의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착의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서 보면 체형의 매력이 낮아질수록 의복이 갖는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며 신체에 만족할수록 타이트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덜 만족할수록 여유가 있어 체형이 은폐되는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였다(정삼호, 강혜원, 1988; 박우미, 고유미, 1994). 이렇게 의복의 실루엣 중에는 체형을 그대로 표현하는 디자인도 있지만 체형실루엣을 감추는 형태도 가능하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부위의 인지에 따른 구체적인 착의의복형태와 관련한 자료가 거의 없거나 단편적이어서 이것을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착의 의복형태가 체형을 보완하고 연령이 갖는 매력까지 표현할 수 있다면(岡部和代 外, 1995) 중년여성들은 신체적 만족감이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어져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부위의 인지유형은 무엇인가, 실제체형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그리고 신체부위 인지유형 별 실제 착의 의복형태와 유형간 의복형태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불만 신체부위를 보정할 수 있는 착의 방법이나 디자인의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먼저, 중년여성의 신체부위 인지유형을 살펴보고 인지유형별 실제체형의 특징과 신체만족도, 그리고 인지유형별 착의의복 스타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35세에서 59세에 이르는 138명이었으며 Röhler's Index가 2.0이상과 1.0이하인 조사대상자와 기타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126명의 자료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와 함께 실제체형을 살펴보기 위한 직접계측과 사진촬영을 2001년 4월부터 11월까지 동시에 실시하였다.

### 2. 설문조사내용

설문항목은 신체부위 인지관련 23문항과 신체만족도관련 20문항, 착의의복형태관련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1) 신체부위 인지관련 설문내용

&lt;표 1&gt; 신체부위인지 평가문항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상반신길이	상반신이 긴-하반신이 긴
전체비만	전체적으로 비만한-전체적으로 수척한
목길이	목이 긴-목이 짧은
팔·다리<몸통비만	팔·다리에 비해 몸통이 비만한-몸통에 비해 팔, 다리가 비만한
엉덩이 옆선 형태	엉덩이 옆선의 위쪽에 살이 많은-엉덩이 옆선의 아래쪽이 넓은
어깨너비>엉덩이너비	엉덩이 너비보다 어깨가 넓어 보이는-어깨너비보다 엉덩이가 넓어 보이는
밀위길이	밀위길이가 긴-밀위길이가 짧은
넓적다리길이	넓적다리 길이가 긴-넓적다리 길이가 짧은
무릎-발목길이	무릎에서 발목까지의 길이가 긴-무릎에서 발목까지의 길이가 짧은
발목둘레	발목이 굵은-발목이 가는
허리둘레	허리가 굵은-허리가 가는
숱은어깨형태	어깨가 숱은-어깨가 처진
어깨너비	어깨가 넓은-어깨가 좁은
가슴크기	가슴이 큰-가슴이 작은
등이 뒤로 젖혀진	등이 뒤로 젖혀진-등이 앞으로 굽은
팔길이	팔이 긴-팔이 짧은
다리길이	다리가 긴-다리가 짧은
위팔둘레	위팔이 굵은-위팔이 가는
아래팔둘레	아래팔이 굵은-아래팔이 가는
O-X 다리형태	O형 다리-X형 다리
넓적다리둘레	넓적다리가 굵은-넓적다리가 가는
종아리둘레	종아리가 굵은-종아리가 가는
아래배를 내민자세	엉덩이보다는 아래배를 내밀고 서는-아랫배보다는 엉덩이를 내밀고 서는

자신의 신체부위별 굵기와 길이 및 형태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신체부위 인지관련 23 문항을 SD법에 의해 5단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문항은 연구자가 계측부위를 기준으로 굵기와 길이 그리고 크기로 표현하여 제작하였으며 의복의 디자인이나 제작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신체의 형태를 포함하여 제작하였다. 예비평가를 통해 반복되거나 애매한 표현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으며 그 평가내용은 <표 1>과 같다.

## 2) 신체만족도 설문내용

신체만족도는 신체부위별 만족도를 묻는 내용으로 Labat(1987)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0문항을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만족도를 평가한 구체적인 신체부위 항목은 <표 5>의 신체부위 내용과 같다.

## 3) 착의 의복스타일 설문내용

착의의복스타일은 의복형태와 관련된 21문항을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의복형태관련 문항은 박재경, 남윤자(1999)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의복형태 항목은 <표 6>의 의복형태 내용과 같다.

## 3. 실제체형파악을 위한 계측

실제체형파악을 위해 직접계측과 간접계측인 사진계측을 실시하였다. 직접계측은 줄자를 이용하여 계측하였으며 직접계측항목은 가슴둘레, 밀가슴둘레, 허리둘레, 최대배둘레, 엉덩이둘레, 오른쪽 넓적다리둘레, 무릎둘레, 발목둘레, 위팔둘레, 아래팔둘레부위의 둘레항목 10항목, 등길이, 팔길이, 다리길이, 밀위길이, 앞땀, 뒤땀의 길이항목 6항목, 신장 1항목, 체중 1항목

을 직접 계측하였다. 그리고 신장과 체중은 신장계와 체중계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간접계측치인 사진 계측치로서 어깨높이, 앞목점높이, 뒤희리높이, 살높이, 무릎높이의 5개의 높이항목과 어깨너비, 엉덩이너비, 무릎사이너비의 3개의 너비항목 그리고 앞·뒤가슴두께, 앞·뒤희리두께, 앞·뒤통두께, 앞·뒤통이두께의 8개의 두께 항목을 수집하였다. 사진 계측에 활용된 사진기는 디지털 카메라 SONY DCS-S75(DM)이었으며 각각의 피험자 정면, 옆면 사진을 Bmp file로 저장하였다. 계측과 촬영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험자는 체형의 실루엣을 그대로 보여주는 에어로빅복을 착용하였다. 촬영 시 피험자와 카메라의 거리는 4m였으며 그리고 사진기 높이는 120cm로 고정하였고 피험자 뒤

쪽에 10cm 방안지를 배경으로 부착한 후 촬영되었다. 그리고 간접계측은 Adobe Illustrator 9.0 프로그램의 rule tool을 이용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계측하였다.

4. 자료분석

먼저, 신체부위 인지유형 분류를 위해 주성분분석의 Verimax Rotation 을 통해 인지유형을 설명하는 고유치 1이상의 성분요인을 얻었다. 그리고 각 성분의 요인값을 이용한 군집분석을 실행하여 인지유형을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군집간의 인지유형차이에 대해 평균과 ANOVA, Duncan-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신체부위 인지유형별 실제 신체치수의

<표 2> 인지체형 분류를 위한 요인분석

설명된 성분	요인값	고유치	누적기여율(%)	
팔·다리 굵기 요인				
1 요인	종아리둘레	.882	4.11	17.87
	넓적다리둘레	.804		
	발목둘레	.752		
	아래팔둘레	.596		
	전체비만	.555		
팔·다리 길이 요인				
2 요인	무릎-발목길이	.866	2.81	30.08
	다리길이	.786		
	팔길이	.692		
몸통비만요인				
3 요인	팔, 다리<몸통 비만	.735	2.23	39.76
	가슴크기	.678		
	엉덩이 옆선형태	.610		
	허리둘레	.479		
정면 실루엣 요인				
4요인	어깨너비	.821	1.95	48.23
	어깨>엉덩이너비	.666		
	O-X형 다리	.512		
몸통길iy요인				
5요인	밀위길이	.708	1.56	55.02
	상반신길이	.592		
	목길이	.582		
	넓적다리길이	.556		
측면 실루엣요인				
6요인	아래배를 내민 자세	.835	1.35	60.88
어깨부위형태요인				
7요인	숏은 어깨형태	.785	1.21	66.14
	등이 뒤로 젖혀진 체형	.554		
	위팔둘레	-.500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Verimax

&lt;표 3&gt; 신체인지에 따른 군집분석

(n=126)

설명 요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F-value
		전체비만 인지유형 (n=33)	팔/다리 비만 인지유형 (n=58)	전체수척 인지유형 (n=35)	
		중심요인값	중심요인값	중심요인값	
1 요인	팔·다리 굵기요인	.1668481B	.4905687B	-.9608646A	29.785***
2 요인	팔·다리 길이요인	-.1163903	.0967020	-.0510200	.423
3 요인	몸통비만요인	.6095146B	-.2325668A	-.1839038A	7.393***
4 요인	정면 실루엣요인	-.4625916A	.5235921B	-.4306377A	14.983***
5 요인	몸통길이요인	-.1042658	-.0980300	.1129973	.318
6 요인	측면 실루엣요인	-.8770893A	.2150715B	.4611083B	19.206***
7 요인	어깨부위형태요인	-.3864997A	.2970991B	.037602AB	.364*

\*p&lt;.05, \*\*p&lt;.01, \*\*\*p&lt;.001 알파벳: Duncan-grouping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요인값에 의해 분류된 각각의 군집별 특징을 키에 대한 신체 각 부위의 치수를 표현하는 지수치와 신체부위간의 실제치수차이를 표현하는 드롭치에 대해 평균과 ANOVA, Duncan-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류된 인지 유형 별 신체 만족도와 착용의복형태의 관계에 대해 평균과 최빈치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인지유형간 차이는 ANOVA와 Duncan-test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들은 SPSS/WIN package program (ver. 10.1)으로 이루어졌다.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신체부위 인지유형의 분류

자신의 신체 부위에 대해 각각의 굵기, 길이 그리고 형태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통해 고유치 1이상의 7 요인을 얻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설명된 성분요인을 살펴보면 1 요인은 팔·다리의 굵기요인, 2 요인은 팔·다리의 길이요인, 3 요인은 몸통비만요인, 4 요인은 정면 실루엣요인, 5 요인은 몸통길이요인, 6 요인은 측면 실루엣요인, 7 요인은 어깨부위형태를 설명하는 요인이었으며 일곱개 성분의 총설명력은 66.14 %였다.

다음으로 신체부위 인지유형의 분류를 위해 위의 전체 일곱 개의 요인값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 3군집을 얻을 수 있었으며 군집별 요인값은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세 군집간의 1 요인 팔·다리굵기, 3 요인 몸통비만, 4 요인 정면 실루엣, 6 요인 측면 실루엣, 7 요인 어깨부위형태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군집 1은 팔, 다리가 굵지만 몸통부위가 팔, 다리부위에 비해 더 굵다고 인지하였다. 또 어깨너비가 엉덩이너비에 비해 좁고 배보다는 엉덩이를 내밀고 서는 자세이며 쳐진 어깨에 등 부위를 앞으로 숙인 체형으로 인지하는 신체인지 유형이다. 따라서 이 유형을 전체비만 인지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팔, 다리가 굵으며 팔, 다리에 비해 몸통이 가늘다고 인지하는 유형이었다. 그리고 어깨너비가 엉덩이 너비에 비해 넓고, 배를 내밀고 서는 자세이며 솟은 어깨로 인지하는 신체인지유형으로 팔/다리 비만 인지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팔, 다리가 가늘고 몸통도 팔다리에 비해 더 가늘며 배를 내밀고 서는 자세로 인지하는 신체인지 유형으로 전체수척 인지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신체 인지유형간의 각 신체부위별 인지 차이를 구체적으로 평균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4>.

중년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위팔둘레와 넓적다리둘레에 대해 보통보다 굵다고 생각하고 어깨가 넓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등을 앞으로 숙인 체형으로 인지하며 발목둘레와 아래팔둘레에 대해 가늘게 생각하였다. 팔은 길며 다리는 짧고 어깨는 쳐지고 다리는 O-형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컸다.

인지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비만 인지유형은 전체적으로 가장 비만하고 넓적다리둘레가 가장 굵다고 생각하는 반면 발목이나 종아리는 보통이며 위팔둘레는 중간이고 아래팔둘레는 가늘다고 인지하였다. 그리고 아랫배보다는 엉덩이를 내밀고 서는 자세로 인지하였다.

팔/다리 비만 인지유형은 전체적인 비만은 보통이며 종아리, 넓적다리, 아래팔, 위팔둘레에 대해 다른

집단보다 그리고 몸통에 비해 굵다고 인지하였다. 그리고 어깨너비가 엉덩이너비보다 넓고 약간 솟은 어깨에 일자형의 다리형태로 인지하였다.

전체 수척 인지유형은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이라고 생각하며 종아리, 넓적다리, 발목, 위팔, 아래팔둘레에 대해 가능하게 인지하였다. 그리고 다리는 약간 X-형에 가깝게 인지하였다.

인지유형간에는 넓적다리둘레, 종아리둘레, 위팔둘레, O형 다리-X형 다리형태, 아래팔둘레, 발목둘레, 어깨너비, 전체비만에 대한 신체인지 항목 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굵거나 크다고 생각

하는 항목들로 굵게 인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더 가늘게 인지하는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둘레나 너비항목에 대한 인지가 길이항목에 비해 신체부위인지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보아 선행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길이보다는 둘레나 너비 등에 대한 신체부위인지가 더욱 관심 있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체부위 인지유형별 실제 신체치수의 특징

다음으로 신체부위 인지유형별 실제 신체치수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요인값에 의해 분류된 각각의 군

<표 4> 신체 인지유형간의 각 신체부위별 인지차이 (n=126)

신체부위	전체		군집 1		군집 2		군집 3		F-value	
	평균	표준편차	전체 비만 인지유형 (n=33)		팔/다리 비만 인지유형 (n= 58)		전체 수척 인지유형 (n= 3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요인	종아리둘레	3.10	1.43	3.26B	1.61	3.70B	0.99	1.96A	1.23	17.216***
	넓적다리둘레	3.24	1.40	3.77B	1.36	3.69B	1.07	2.00A	1.15	21.618***
	발목둘레	2.57	1.46	2.54AB	1.68	3.15B	1.32	1.64A	0.91	11.267***
	아래팔둘레	2.61	1.43	2.04A	1.40	3.28B	1.29	2.04A	1.24	11.311***
	전체비만	3.13	1.37	3.85B	1.22	3.22B	1.21	2.32A	1.36	10.120***
2요인	무릎-발목길이	2.73	1.40	2.27	1.54	2.87	1.33	2.93	1.33	1.956
	다리길이	2.86	1.46	2.73	1.66	2.93	1.34	2.86	1.51	.159
	팔길이	3.19	1.51	3.69B	1.52	3.26AB	1.34	2.61A	1.62	3.782*
3요인	팔, 다리<몸통 비만	3.16	1.37	3.88B	1.37	2.87A	1.17	2.96A	1.48	5.408**
	가슴크기	2.80	1.56	3.23	1.86	2.65	1.39	2.64	1.52	1.343
	엉덩이 옆선형태	3.04	1.43	3.27	1.66	2.96	1.32	2.96	1.48	.444
	허리둘레	2.80	1.46	2.85	1.69	3.00	1.26	2.43	1.50	1.367
4요인	어깨너비	3.13	1.51	2.65A	1.65	3.78B	1.11	2.50A	1.55	9.406***
	어깨>엉덩이너비	2.99	1.55	2.12A	1.56	3.57B	1.24	2.86AB	1.63	8.574***
	O-X형 다리	2.76	1.31	2.38A	1.39	3.41B	0.96	2.04A	1.26	13.922***
5요인	밀위길이	3.08	1.39	3.15	1.67	3.15	1.23	2.89	1.39	.348
	상반신길이	2.90	1.56	3.12	1.73	2.91	1.44	2.68	1.63	.522
	목길이	2.91	1.43	2.62	1.50	2.87	1.20	3.25	1.67	1.374
	넓적다리길이	2.94	1.35	2.62	1.58	3.07	1.24	3.04	1.29	1.025
6요인	아래배를 내민 자세	3.05	1.33	2.08A	1.44	3.35B	1.10	3.46B	1.14	11.505***
7요인	솟은 어깨형태	2.76	1.42	2.23A	1.75	3.07B	1.16	2.75AB	1.35	3.006
	등이 뒤로 젖혀진 체형	2.25	1.20	3.69	1.52	3.26	1.34	2.61	1.62	1.789
	위팔둘레	3.34	1.44	3.27B	1.66	4.02C	0.93	2.29A	1.30	16.596***

\*p<.05, \*\*p<.01, \*\*\*p<.001 알파벳: Duncan-grouping  
점수가 높을수록 '굵다/길다/크다/ -에 가깝다'를 의미한다.

<표 5> 신체부위 인지유형 별 신체비례 및 실제치수

항목	전체 (n=126)		군집 1 전체 비만 인지유형 (n=33)		군집 2 팔/다리 비만 인지유형 (n=58)		군집 3 전체 수척 인지유형 (n=35)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종아리둘레/키 (실제종아리둘레)	.219 (34.81)	.017 (2.69)	.222 (35.45)B	.019 (3.18)	.219 (35.00)AB	.017 2.65	.214 (33.87)A	
넓적다리둘레/키 (실제넓적다리둘레)	.337 (53.69)	.035 (5.58)	.349 (55.48)B	.057 (9.21)	.336 (53.59)AB	.024 (3.48)	.329 (52.17)A	0.183 (2.00)	2.236 (2.422*)
발목둘레/키	.142	.013	.144	.012	.143	.011	.140	.017	.452
아래팔둘레/키 (실제아래팔둘레)	.150 (23.87)	.013 (1.93)	.152 (24.09)AB	.015 (2.25)	.152 (24.17)B	.011 (1.63)	.146 (23.15)A	.013 (1.94)	1.861 (2.758*)
Rohrer's Index	1.42	0.19	1.47	0.20	1.42	0.18	1.39	0.19	1.200
무릎높이/키	.245	.023	.244	.012	.244	.010	.245	.039	.029
다리길이/키	.583	.017	.588	.018	.581	.016	.584	.016	1.431
팔길이/키	.340	.013	.341	.012	.340	.013	.339	.013	.161
배둘레/키 (실제배둘레)	.555 (88.34)	.041 (6.23)	.571B (90.84)B	.046 (7.32)	.547A (87.20)A	.038 (5.54)	.554AB (87.87)A	.037 (5.74)	3.004** (3.077**)
엉덩이둘레/키 (실제엉덩이둘레)	.588 (93.63)	.035 (5.36)	.601B (95.83)B	.040 (6.45)	.585AB (93.26)AB	.036 (4.53)	.581A (92.13)A	.033 (5.02)	2.776** (3.523**)
가슴둘레-밑가슴둘레/키 (실제가슴-밑가슴)	.059 ( 9.26)	.018 (3.01)	.067B (10.57)B	.017 (2.76)	.055A (8.88)A	.018 (3.08)	.057A (8.68)A	.014 (2.85)	4.770*** (3.537**)
배둘레-허리둘레/키 (실제배-허리둘레)	.093 (14.75)	.022 (3.88)	.101B (16.13)B	.024 (3.66)	.085A (13.55)A	.019	.100B (15.42)AB	.021 (4.51)	6.940*** (4.570***)
엉덩이둘레-허리둘레/키 (실제엉덩이-허리)	.127 (19.98)	.022 (4.22)	.133 (21.11)	.021 (3.46)	.123 (19.61)	.025 (4.16)	.129 (19.54)	.019 (4.87)	1.623 (1.267)
허리둘레/키	.462	.046	.470	.054	.462	.044	.453	.041	.818
어깨너비/키	.237	.020	.235	.022	.240	.013	.233	.010	2.334*
어깨너비-엉덩이너비/키	-.016	.160	-.006	.018	.009	.014	-.001	.018	1.103
무릎사이너비/키	.007	.009	.006	.001	.007	.001	.006	.001	.138
밀위길이/키	.172	.014	.172	.014	.171	.001	.173	.002	.138
등길이/키	.237	.020	.236	.020	.239	.020	.234	.021	.558
살높이-무릎높이/키	.198	.024	.198	.016	.198	.012	.196	.004	.083
뒤-앞엉덩이두께/키	.052	.016	.057	.012	.049	.019	.053	.012	2.240
뒤허리-앞허리두께/키	.028	.014	.030	.013	.025	.015	.030	.013	1.570
뒤배-앞배두께/키	.039	.018	.045	.013	.036	.012	.041	.014	2.296
어깨높이-앞목높이/키	.015	.009	.012	.008	.016	.010	.015	.009	.650
뒤폭-앞폭/키	.013	.021	.013	.016	.012	.028	.015	.008	.099
뒤가슴-앞가슴두께/키	.045	.015	.048	.014	.043	.016	.046	.013	.703
위팔둘레/키	.186	.022	.188	.019	.188	.025	.180	.016	1.279

\*p<.10, \*\*p<.05, \*\*\*p<.01 알파벳: Duncan-grouping

집별 특징을 키에 대한 신체 각 부위의 치수를 표현하는 지수치와 실제치수 그리고 신체부위간의 실제치수 차이를 표현하는 드롭치에 의한 평균과 ANOVA, Duncan-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

인지유형간에  $p < .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로 인지 <표 4>하는 신체부위인 넓적다리둘레, 종아리둘레, 위팔둘레, 아래팔둘레 등의 실제치수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보이나 그 차이가  $p < .05$  이하의 유의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제에 비해 매우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 신체부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둘레 치수들은 인지유형간에 신체비례치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반면 실제치수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p < .10$  수준에서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신체비례적인 인지를 하기보다는 절대실제치수의 비교에 의한 신체부위 인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유의수준은 다르지만 실제 신체치수의

경우도 둘레와 너비 두께 등의 인지유형별 차이를 볼 수 있어 실제체형에 근거한 신체인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지유형간  $p < .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로 인지 <표 4>하는 위팔둘레와 발목둘레 그리고 팔길이 등은 실제치수나 신체비례치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관적인 신체인지의 경향이 강한 신체부위로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신체부위 인지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비만 인지유형의 경우 실제치수나 신체비례특징도 몸통을 의미하는 가슴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등이 세 인지유형 중 가장 굵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인지도 가장 굵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다리 비만 인지유형과 전체수칙 인지유형은 전체 비만 인지유형에 비해 몸통을 이루는 치수들이 가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치수에 근거하여 인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팔/다리 비만 인지유형의 경우 신체비례나 실

<표 6> 신체부위 인지유형 별 신체만족도

신체부위	전 체		군집 1		군집 2		체형 3		F-value
			전체 비만 인지유형		팔/다리 비만 인지유형		전체 수칙 인지유형		
	Mean	최빈값	Mean	최빈값	Mean	최빈값	Mean	최빈값	
넓적다리	2.50	3	2.28	2	2.47	2	2.75	3	1.712
종아리	2.74	3	2.76	3	2.71	3	2.79	3	.057
목	3.00	3	3.08	3	2.96	3	3.00	3	.180
어깨너비	2.68	3	2.80	3	2.53	2	2.82	3	1.332
엉덩이형태	2.56	3	2.48	2	2.60	2	2.57	3	.156
전체실루엣	2.54	3	2.08A	2	2.80B	3	2.54B	3	6.184**
다리형태	2.68	3	2.68	3	2.55	3	2.89	3	1.630
위팔	2.54	3	2.56	2	2.47	3	2.63	3	.356
허리	2.58	3	2.44	2	2.71	3	2.75	3	1.098
발목	2.96	3	2.96	3	2.93	3	3.00	3	.042
키	2.77	3	2.88	3	2.71	3	2.75	3	.274
체중분포도	2.32	2	2.04	2	2.40	2	2.44	2	1.775
가슴	2.58	3	2.36	2	2.64	3	2.67	3	1.173
아래팔	2.87	3	2.92	3	2.80	3	2.93	3	.338
손목	3.13	3	3.16	3	3.07	3	3.22	3	.433
어깨형태	2.79	3	2.88	3	2.71	3	2.85	3	.606
자세	2.94	3	2.80	3	3.04	3	2.93	3	1.287
몸통	2.55	3	2.24A	2	2.71B	3	2.57AB	3	3.780*
배	2.26	2	2.00	2	2.40	2	2.26	2	2.084
등	2.78	3	2.76	3	2.73	3	2.89	3	.358

\* $p < .05$ , \*\* $p < .01$  알파벳:Duncan-grouping



체치수에 있어 중간치수에 속하는 팔, 다리의 굵기에 대해 더욱 굵게 인지<표 4>하였고 실제 몸통부위 굵기에 대해서는 더욱 가늘게 인지하는 경향이 나타나 신체부위 간에 상대적인 인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수척 인지유형은 실제 전체비만을 나타내는 Röhler Index가 1.39로 1.47인 전체비만 인지체형, 1.42인 팔/다리 비만 인지유형과 그 차이가 유의한 수준이 아닌 반면 다른 신체부위 인지는  $p < .001$  수준에서 평균 2.32로 다른 체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수척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비만인 신체부위는 더욱 비만하게 인지하는 반면 마른 부위는 상대적으로 더욱 마르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3. 신체부위 인지유형별 신체만족도**

<표 6>을 보면 중년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목, 발목,

손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체부위에서 만족도가 보통(3.0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중심 쪽에 속하는 배와 몸통, 가슴, 허리 그리고 넓적다리와 위팔에 대한 만족도와 전체실루엣이나 체중분포도에 대해서도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배와 체중분포도에 대해서는 모든 체형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여대생들이 넓적다리와 엉덩이둘레 등 하반신둘레에 불만이 많은 경향을 보인 것(남윤자, 이승희 2001)에 비하면 중년이 되면서 변화가 많은 배, 체중분포도, 가슴, 허리, 위팔 등에 불만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대생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낮거나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최빈값 3인 보통에 가까운 불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인지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비만 인지유형의 경우 다른 인지유형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신체부위가 더 많았으며 굵게 인지하는 가슴, 허리, 배, 몸통, 넓

**<표 7> 신체부위 인지유형별 의복착용형태와 차이**

의복형태	구분		전체		전체 비만 인지유형		팔/다리 비만 인지유형		전체 수척 인지유형		F-value
	평균	최빈값	평균	최빈값	평균	최빈값	평균	최빈값	평균	최빈값	
1) 목둘레가 높은 상의	2.56	3	2.59	3	2.45	2	2.69	2	.363		
2) 파임이 큰 목둘레의 상의	2.52	2	2.59	3	2.45	2	2.44	2	.080		
3) 팔은 물론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모두 노출한 상의	1.91	2	1.86	1	1.90	2	1.96	2	.055		
4) 어깨가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	1.71	2	1.63	2	1.72	2	1.74	2	.112		
5)어깨가 좁아 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	3.02	3	3.18	4	3.09	3	2.78	3	.658		
6)몸통상부에 밀착되어 신체실루엣이 드러나는 상의	2.61	2	2.45	2	2.65	2	2.67	2	.254		
7) 몸통 상부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상의	2.76	3	2.86	4	2.73	3	2.70	3	.127		
8) 팔 전체가 노출된 상의	2.47	2	2.09A	1	2.43AB	2	2.85B	2	2.603*		
9) 팔이 밀착되는 소매의 상의	2.57	2	2.27	2	2.55	2	2.85	3	1.368		
10) 허리부분 전후길이의 짧은 상의	2.55	3	2.14A	2	2.51AB	2	2.96B	3	2.564*		
11) 엉덩이가 덮이는 긴 길이의 상의	2.78	3	2.59	3	2.93	3	2.70	3	.569		
12) 몸통하부에 밀착되어 신체실루엣이 드러나는 하의	2.34	2	2.18	2	2.36	2	2.46	2	.333		
13) 상의 밑으로 넣은 하의	2.51	3	2.40	3	2.64	3	2.37	2	.550		
14) 밑위 길이가 짧아 엉덩이에 걸쳐 입는 슬랙스	2.36	2	2.27	2	2.36	2	2.42	2	.087		
15) 무릎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스커트	1.99	2	2.18	1	1.86	1	2.04	2	.635		
16) 무릎 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반바지	1.99	2	2.05	1	1.90	2	2.07	2	.246		
17) 다리에 밀착되어 다리 실루엣이 드러나는 긴 슬랙스	2.17	2	1.82	1	2.28	2	2.30	2	1.516		
18) 다리전체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긴 슬랙스	2.67	3	2.32	3	2.90	3	2.59	3	2.156		
19) 발목 전후길이의 긴 스커트	2.86	4	2.73	4	2.81	4	3.04	4	.416		
20) 몸통에 밀착되어 신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원피스	2.38	2	1.95A	1	2.40AB	2	2.70B	3	2.554*		
21) 밑위길이가 긴 바지	2.40	3	2.04	2	2.50	3	2.52	3	1.449		

\* $p < .01$ , 알파벳: Duncan-grouping

적다리와 전체실루엣, 체중분포도 등에 대해 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팔/다리비만 인지유형은 역시 배부위의 만족도가 낮았고 넓적다리, 어깨너비, 위팔, 체중분포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신체부위는 다른 인지유형에 비해 크게 낮거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가장 가늘게 인지하고 Röhler Index도 가장 작은 전체 수척인지체형은 다른 체형들이 만족도가 낮은 것에 비해 만족도가 보통에 더 가까운 신체부위가 더 많았으나 역시 배 부위와 체중분포도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인지유형처럼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인지유형간에는 전체실루엣( $p < .01$ )과 몸통( $p < .05$ )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팔다리에 비해 몸통이 비만하다고 인지하는 전체 비만 인지유형의 경우 전체실루엣에 대해 평균 2.08, 최빈값 2, 몸통에 대해 평균 2.24, 최빈값 2로 가장 불만족스러워 했다. 그리고 팔, 다리가 몸통에 비해 굵다고 인지하는 팔/다리 비만 인지유형의 경우에 전체실루엣은 평균 2.80, 최빈값 3, 몸통 2.71 최빈값 3으로 다른 인지유형보다 더 보통에 가깝게 생각하였다. 전체 수척 인지유형은 다른 신체부위는 만족도가 다른 인지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반면 전체실루엣은 평균 2.54, 최빈값 3, 몸통은 평균 2.57, 최빈값 3으로 세 인지유형 중 중간 정도였다.

**4. 신체부위 인지유형별 착용의복형태**

신체부위 인지유형별 착용의복형태에 대해 평균과 최빈값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았다. 중년 여성들의 실제 의복착용형태의 전체평균은 1.71-3.02로 분포하고 있었다. 어깨가 좁아 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가 3.02로 가장 자주 착용하는 의복형태였고 발목 전,후 길이의 긴 스커트, 엉덩이가 덮이는 긴 길이의 상의, 몸통 상부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상의 등의 순서로 평균이 높아 실제로 착용하는 빈도가 높은 의복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어깨가 넓어 보이는 상의 디자인이나 팔은 물론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노출하는 상의, 무릎 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스커트와 반바지 등은 평균 1.71-1.99 로 실제로 착용하는 빈도가 낮은 의복형태로 나타났다.

신체부위 인지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비만 인지유형은 어깨가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 팔은 물론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모두 노출한 상의, 다리

에 밀착되어 다리실루엣이 드러나는 긴 슬랙스, 몸통에 밀착되어 신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원피스의 순서로 가장 착용하지 않는 의복형태로 평균 1.63-1.95을 나타냈다. 반면 어깨가 좁아 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 몸통 상부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상의, 발목 전,후 길이의 긴 스커트, 엉덩이가 덮이는 긴 길이의 상의가 평균 3.18-2.58로 더 자주 착용하는 의복형태였다. 몸통 비만 인지유형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유가 많아 헐렁하고 노출보다 덮이는 의복형태를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팔/다리비만 인지유형은 어깨가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 무릎 위 길이의 다리노출이 심한 짧은 스커트와 반바지, 팔은 물론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모두 노출한 상의 순서로 1.63-1.90의 평균을 나타냈으며 실제 가장 착용하지 않는 의복형태였다. 그리고 어깨가 좁아 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 엉덩이가 덮이는 긴 길이의 상의, 전체적으로 여유가 많아 헐렁한 슬랙스, 발목 전,후 길이의 긴 스커트가 평균 3.09-2.81로 더 자주 착용하는 의복형태였다. 팔/다리 비만 인지유형의 경우 팔, 다리, 특히 다리가 노출되거나 실루엣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수척 인지유형은 어깨가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 팔은 물론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모두 노출한 상의가 평균 1.74-1.96으로 실제 가장 착용하지 않는 의복형태였다. 반면 발목 전후 길이의 긴 스커트, 허리 전후 길이의 짧은 상의, 팔 전체가 노출된 상의의 순서로 실제 자주 착용하는 의복형태였다.

신체부위 인지유형이나 실제 체형과 상관없이 어깨가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와 팔은 물론 가슴 윗부분을 모두 노출한 상의를 가장 착용하지 않고 어깨가 좁아 보이도록 디자인된 상의와 발목길이의 긴 스커트를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보아 체형뿐 아니라 유행이나 연령과 관계된 착의의복형태로 볼 수 있다. 중년여성은 젊은 여성이 자주 착용하는 다리 여유가 있는 슬랙스(박재경, 남윤자, 1999)보다 발목 전후 길이의 긴 스커트를 더 자주 착용하였고 엉덩이가 덮이는 긴 길이의 상의를 더 착용하였다. 몸통상부에 여유가 있는 상의 디자인은 젊은 여성이나 중년여성이나 모두 자주 착용하는 디자인이었다. 반면 어깨와 가슴위부분을 노출하는 상의, 짧은 반바지와 스커트 등은 젊은 여성이나 중년여성 모두 자주 착용하지 않는 디자인이었다. 다리부위를 은폐하기 위해 착용하

는 디자인으로 다리에 여유가 있는 슬랙스보다 발목 길이의 스커트를 착용하는 것은 연령적인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엉덩이아래까지 내려와 몸통하부를 은폐시켜주는 상의 착용은 체형과 관련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신체부위 인지유형간에 유의한 차이( $p < .10$ )가 있는 의복형태는 팔 전체가 노출되는 상의, 허리 전후 길이의 짧은 상의와 몸통에 밀착되어 신체실루엣이 드러나는 원피스로 전체 비만 인지유형은 1.95-2.14(최빈값 2)로 거의 착용하지 않는 스타일이며 전체 수척 인지유형은 2.70-2.96(최빈값 3)으로 더 자주 착용하고 팔/다리 비만 인지유형은 2.40-2.51(최빈값 2)로 착용하는 빈도가 그 중간 정도였다. 신체부위를 마르게 인지할수록 비만인지유형보다 신체가 노출되거나 실루엣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으며 팔다리가 몸통에 비해 비만하다는 이유가 팔 전체를 노출하는 디자인의 착용을 거부하도록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의복을 디자인하거나 제작함에 있어 노출되거나 실루엣이 드러나는 디자인도 이루어지면서 제작수량을 디자인에 따라 체형과 관련하여 조절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체형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그리고 신체부위 인지유형별 그리고 인지유형간의 착의의복형태와 착용방법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중년여성을 위한 신체부위인지와 관련된 디자인의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먼저 중년여성의 신체부위 인지유형을 도출하고 인지유형 별 실제체형의 특징과 신체만족도, 신체부위 인지유형별 착용의복 스타일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체부위 인지유형은 전체 비만 인지유형, 팔/다리 비만 인지유형, 전체 수척 인지유형의 3가지로 분류되었다. 인지유형 간에는 넓적다리둘레, 종아리둘레, 위팔둘레, O형다리-X형다리형태, 아래팔둘레, 발목둘레, 어깨너비, 전체비만 등의 신체부위항목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굵거나 크다고 인지하는 반면 작거나 가늘다고 인지하는 항목들이

었다.

2. 신체부위 인지유형별 실제체형에도 둘레와 너비, 두께의 차이를 볼 수 있었으나 인지유형의 차이보다 더 적은 것으로 보아 실제체형에 근거한 신체인지를 하지만 실제보다 더 크거나 굵게 인지하고 반면 더 가늘거나 작게 인지하는 특징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위팔둘레, 발목둘레, 팔길이 등의 신체부위는 실제치수나 신체비례치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인지유형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 주관적인 체형인지의 경향이 강한 신체부위로 볼 수 있었다.

3. 중년여성의 신체만족도는 인지유형과 관계없이 배부위, 넓적다리, 위팔에 있어 가장 낮았고 전체실루엣과 몸통부위에 있어 인지유형간의 차이가 있었다. 전체수척 인지유형의 경우 다른 인지유형과 달리 전체실루엣이나 몸통에 대한 신체만족감이 더 높으며 팔 전체가 드러나는 슬리브리스나 몸통이 밀착되어 실루엣이 드러나는 원피스를 차이 있게 더 자주 착용하였다. 그리고 배부위와 위팔에 대한 만족감이 모든 체형에서 낮았음에도 팔 전체가 드러나는 슬리브리스나 배가 드러나는 허리 전후 길이의 상의착용을 하는 신체부위 인지유형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신체만족도와 착용의복형태와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중년여성들은 신체부위 인지유형과 관계없이 어깨가 넓어 보이는 디자인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어깨가 좁아 보이는 상의나 하반신이 덮이는 발목길이의 스커트를 더 자주 착용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만할수록 밀착되어 실루엣이 드러나거나 길이가 짧거나 노출이 심한 디자인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신체부위 인지에 따른 유형이 존재하며 또한 인지유형간의 굵기, 크기, 형태에 따른 신체인지와 신체만족도의 차이, 착의의복형태의 차이가 있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체형에 따른 의복형태의 변화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단지 중년여성의 의복 디자인에 있어 슬리브리스나 몸통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디자인, 허리길이의 상의 디자인 등은 체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디자인의 생산량은 사이즈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변인에 대한 통제 및 지역적 한계 등으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구양숙, 추태귀. (1996).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 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9.

김용숙. (1990). 전북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77-189.

남윤자, 이승희. (2001).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764-772.

박우미. (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박우미, 고유미. (1994).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착의 행동과의 관계연구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광주대 민족문화예술연구소 논문집*, 3, 105-124.

박재경, 남윤자. (1999). 신체 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1149-1160.

정삼호, 강혜원. (1988).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신체적조건을 중심으로. *가정문화논의*, 2, 61-82.

정옥임. (1993).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체형과 실제체형과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53-162.

심정희. (2003). 중년 여성의 체형에 대한 자기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7(1), 18-28.

정재은. (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平澤和子, 長井久美子. (1993). 成人女子の體つきの分類(第1報)-胴部形態の特徴, *日本家政學會誌*, 44(7), 581-588.

岡部和代 山名信子, 山本和枝. (1995). 成人女子シルエットのつきの評価と服装シルエットとの関連について, *繊維製品消費科學會誌*, 36(3), 295-300.

Douty, H. I., & Brannon, E. L. (1984).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122-137.

Lennon S. J. (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195-203.

Labat, K. L. (1987).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a ready-to-wear cloth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sota.